

담양 환경 위해시설 거리제한 현실화 추진

전대산학협력단 용역 권고안 토대 조례개정 반영 주민 85% “환경 영향있다” ...업종별 세분화 조정

담양군은 관내 환경경관 위해시설의 입지제한과 관련해 업종을 세분화하고 거리제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양군 계획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환경과 경관위해시설의 입지를 ‘자연취락지구, 하천, 저수지, 주요도로 경계에서 1800m’로 일률적으로

제한해 왔으나 업종별 여건을 고려, 거리제한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경관 위해시설의 입지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착수, 지난 7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군은 군민 5,315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응답자 5,070·95.4%)를 실시한 결과, 위해시설로 인한 영향 및 강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4.8%가 위해시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 위해정도는 ‘영향이 있다’가 88%, ‘보통’이 11.6%로 대부분 주민이 환경 위해시설로부터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위해시설의 영향으로 피해 정도가 심해 ‘참지 못하겠다’는 응답은 5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지역민이 원하는 업종별 적정제한거리는 레미콘공장 2000m(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퇴

비화공장(42.9%)과 골재·석재공장(44%)은 2000m, 폐기물 처리공장 등도 2000m 이상의 거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44.8%로 높게 도출됐다.

협력단은 지난달 30일 최형식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최종보고회에서 용역결과와 주민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환경·경관 위해시설 입지제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협력단이 군에 제시한 제한거리 권고안은 레미콘 공장은 부지경계선에서 650m, 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기물) 처리공장과 골재석재공장 등은 1250m, 퇴비화공장 등 1500m, 기

타 환경시설 등은 500m 또는 사업별로 개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력단은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조성을 목표로 지역의 대기오염·초미세먼지발생상황과 개선방안 그리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경위해시설의 입지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으며, 업종별 여건과 지역민의 요구를 면밀히 반영했다고 전했다.

국내·외 사례로는 강진군, 나주시, 보성군, 진도군, 함평군 등 8개 시군이 환경 위해시설에 대해 100~1000m까지 거리제한을 두고 있으며,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100~2000m로 제한하고 있다. /담양=장동원 기자

내고장 일꾼



강인규 나주시장은 10일 오후 6시 힐리어 스토어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 후원의발 행사에 참석한다.



김산 무안군은 10일 오전 8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지역현안국고건의사업발굴 보고회에 참석한다.



김준성 영광군은 10일 오전 8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실·과·소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영광 저출산 극복 최우수상

영광군은 최근 전남도 저출산 극복 우수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남도지사 최우수상 표창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출산장려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영광군이 지속적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출산환경 조성’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좋은 영광’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 하겠다.

군에서는 ‘6만을 넘어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 영광’을 비전으로 청년이 돌아와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양질의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확충과 다양한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자립 환경과 결혼·출산에 기여하는 추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3개 분야 80개 사업에 대한 저출산 극복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영광=곽용순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사 010-4601-5323
- 나주 010-5617-2605
010-3713-7458
- 함평 010-3773-2522
- 영광 010-8666-2882
- 화순 010-3666-5888
- 장성 010-3666-1300
- 담양 010-4154-8277
- 장흥 010-3613-6114



장흥군은 결혼장려금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최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장려금을 받은 10쌍의 신혼부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인구감소 대응방안 지속적 업데이트”

장흥군, 결혼장려금 수혜 부부초청 간담회

장흥군은 결혼장려금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최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장려금을 받은 10쌍의 신혼부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부부들은 주거지원, 여가 문화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농업교육 지원, 의료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군은 지난 1년 동안 결혼장려금을 받은 부부 73쌍을 대상으로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장흥군은 만족도 조사와 아이디어

제안, 개선사항 등을 받고 신혼부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역 인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신혼부부 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보다 발전된 장려금 지원책 및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박성재·김경현 무안군의원 지방자치 의정대상

무안군의원은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박성재 무안군의원 부의장과 김경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2명이 동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평화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평가와 연계해 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이 주최하고 한국기

업기술지평가협회가 주관하여 치러졌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공로가 큰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했다.

박성재 의원은 제7대 무안군의원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고, 올해 7월

제8대 무안군의원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선출돼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에 기여했다.

김경현 의원은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동료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제8대 무안군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민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나주 시립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내일 나주문예회관 ‘사운드 오브 뮤직’ 뮤지컬 공연

나주시립합창단(단장 위광환)이 11일 오후 7시부터 나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제7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 장르는 가족뮤지컬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작인 ‘사운드 오브 뮤직’ (Sound Of Music)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만 천 회 이상 공연할 정도로 뮤지컬계의 흥행보증수표다.

1965년 영화로도 제작돼 전 세계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꼽힌다. /나주=이재순 기자

특히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펼쳐지는 에델바이스, 도레미송 등 주옥같은 노래들은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중·고교 음악수업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곤 한다.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무대화시킨 이번 뮤지컬 공연은 시립합창단원과 소년소녀합창단원이 각각 배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생생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맞물린 환상적인 무대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추억 속 동심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이재순 기자



화순군이 최근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형농기계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지원해 27명 전원이 자격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화순=이옥현 기자

화순 ‘대형농기계 자격증’ 전원 취득

화순군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형농기계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지원해 27명 전원이 자격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교육은 국가공인전문기술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진행됐다. 특히 3톤 미만 굴삭기와 지게차에 대한 이론·실기교육, 관련 법규, 농기계안전사용요령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대형농

기계는 총 중량 3톤 미만의 특수 농작업용 장비로 농촌사회가 고령화되고 영농형태가 현대화되면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자격증반 교육을 통해 농기계 이용률 향상과 노동력 절감이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과 무면허 사고 방지 및 안전사용을 도모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서호령 기자

클릭! 고향 소식



빛가람동 다보람요양병원 성금 기탁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다보람요양병원(원장 박재범, 구병환)은 지난 4일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빛가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박재범 병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큰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7일 개원한 다보람요양병원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휴식 공간을 제공, 지역민의 높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나주=이재순 기자



무안여성협의회 김장김치·쌀 전달

무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연자)는 연말을 맞아 관내 저소득 조손가정에 김장김치와 쌀을 전달하는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지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무안군 노인회관 경로식당에서 직접 담근 김장 김치 400포기와 쌀 72포를 관내 조손 가정 72가구에 전달해 훈훈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었다. /무안=박주현 기자



장흥 안양면, 복지시설에 김치 전달

장흥군 안양면(면장 박광규)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눔 실천 봉사활동으로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안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장자치회, 새마을부녀회 최근 안양면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꾸준히 배추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유재명 이장자치회장은 배추 700포기를 후원하는 등 따뜻한 기부 손길도 이뤄졌다. /장흥=이옥현 기자



화순 동북면 장수 두부 전달

화순군 동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춘남·민간위원장 오종진)는 최근 협의체가 발굴한 독거노인세대, 청·장년 독거세대, 장애인세대 100가구에 1차 두부배달을 시작으로 2019년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어려운 가정을 방문 배달한다. 이 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명, 협의체 위원 2명, 맞춤형복지팀 2명은 지원 대상 가정을 방문, 장수 두부를 전달하고 곧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안부를 살폈다. /화순=서호령 기자